

스마야 우와제네자(SMAYAH UWAJENEZA)

영상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에 사는 스마야입니다. 저는 퀘스천커피에서 품질관리자 겸 로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직업을 주었습니다. 저는 커피에서 자부심, 힘, 연결을 경험합니다. 제가 자라난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는 삶의 쓰임과 가치가 무엇인지,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가 왜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협동조합은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의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퀘스천커피의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퀘스천커피는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해 고품질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의 후원으로 지속가능 농법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설립한 퀘스천커피는 여성 커피농민들을 무료로 교육하며, 농민들은 전국에 걸쳐 협동조합으로 조직됩니다.

저는 그렇게 커피업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여성 커피농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직접 지켜보면서 제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커피에 숨겨진 과학을 배우면서 저는 커뮤니티에 기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커피업계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농민들은 목소리도, 얼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 얼굴이 되어 그들에게 받은 만큼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다섯 명의 '리드 장학생'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리드 장학생 사업은 대표성이 낮거나 소외된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커피 커뮤니티의 리더십 다양성을 증진합니다. 저는 리드 장학생으로서 르완다의 40만 커피 농민들을 대변할 기회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농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협동조합들을 대신해 발언하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통해 튼튼한 나라, 튼튼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으며,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삶의 길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